

역사의 뒷골목에서 만나는 생활풍경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조선시대 생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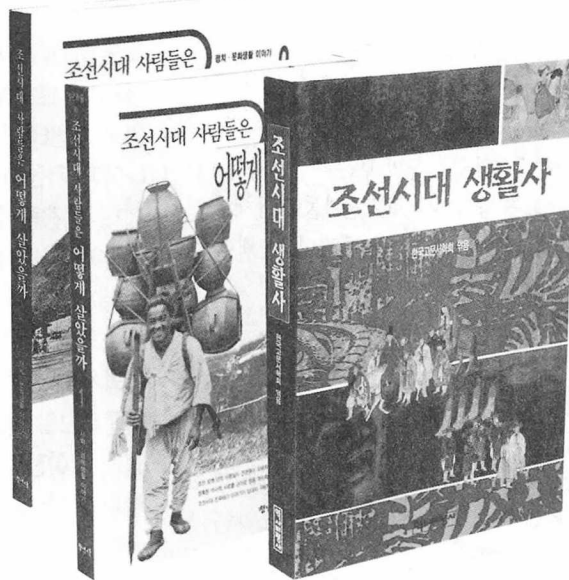
상·하 두권으로 묶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청년사)와 《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사)는 모처럼 만나게 되는 '국도' 같은 역사서다. 애써 외우거나 고민할 필요없이 마치 오래되어 너털너털해진 사진첩을 찢어질새라 조심조심 넘기며 잊혀졌던 옛날을 되새기는 재미를 준다. 한국역사연구회가 펴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특히 사회·경제생활(1권), 정치·문화생활(2권)에 각각 초점을 두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핀 책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밝히

지금까지의 역사서와는 프리즘이 다르니 관심을 둔 주제 자체가 달라지는데, 목차를 훑는 것만으로 호기심이 동한다. 조선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선 시기는 언제인가,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어떠했고 식생활과 음식문화는 어떠했나, 술과 주막의 풍경, 군대생활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가득하다. 소금장수, 보부상, 광부와 백정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실상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니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을까도 관심이 가는데, 아무래도 양반보다는 서민들이 이혼하기가 쉬웠다고 한다. 부부가 서로 마주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이혼하는 사정과의(事情罷議)나 칼로 웃웃의 자락을 베어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표지로 삼았다는 할급휴서(割給休書) 같은 것이 있었

역사에서 시대를 뒤흔든 거창한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보다는 그 뒤에 숨은 무수한 사람들의 살아온 흔적을 살피는 일은 흥미롭다. 조선시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핀 두권의 책은 모처럼 만나는 '국도(國道)' 같은 역사서다.



다고 한다. 옛날의 이혼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운치(?)있었다는 느낌이다.

정치·문화생활을 다룬 2권도 흥미롭기는 마찬가지. 왕실호칭의 이모저모라든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 조선 군대가 보유한 무기나 싸움 방식, 조선시대 사람들의 패션감과 왕도 아이도 즐긴 장치기 놀이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당대 지도제작 수준이 집적된 편찬지도이다.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신문고는 실제로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칠 업두도 못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이같은 사실은 역사에 대한 거친 이해와 상식을 반성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주제에 쉽고 간결한 문장, 풍부한 사진과 그림자료도 책임기를 즐겁게 하는데, 필자 전원이 전공학자이고 내용도 허황된 것이 아니라 검증된 거친 정설이어서 신뢰할 만하다. 우회로를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마련이고 오히려 달려온 길에 대해 더 풍부하고 밀착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기분 좋은 독서체험을 안겨주는 책이다.

고문서의 중요성과 가치

조선시대 관료들은 해가 긴 봄·여름에는 오전 5시~7시에 출근해 오후 5시~7시에 퇴근하며, 해가 짧은 가을·겨울에는 출근은 두시간씩 늦어지고 퇴근은 두시간씩 빨라졌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휴일은 1년에 60일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시대 관료들은 지금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한 셈이다. 얼핏 느끼기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것 같은 이런 자잘한 사실들은 오히려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조선시대 생활사》(한국고문서학회 엮음)는 우리의 옛 기록들이 담고 있는 사소하지만 정직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 신분별 생활상, 제도와 생활, 경제생활 등 크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당시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살피는데, 당시의 축문(祝文)이나 유서(遺書) 같은 사문서(私文書)와 호적대장·사령장·누패(祿牌) 같은 공문서, 각종 서적이나 문서 등을 근거로 해 믿음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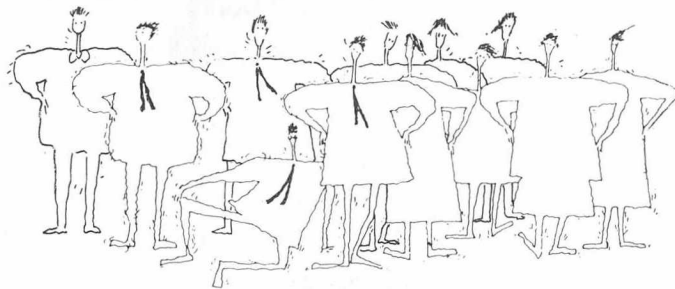
고문서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문서와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고증해 내는 시도는 처음있는 일어서 오히려 신기하기까지 하다. 군데군데 수록된 옛 고문서의 사본들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새로운 감흥을 주는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 호적관리 체계, 재산상속제도, 상례와 재례, 여성생활, 신앙과 놀이, 과거제도 등 전반적인 사실에 대한 상식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뿌듯함도 함께 안겨주는 책이다.

—박남정 기자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POINT-LINE



포인트라인은 픽처북·스토리북·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카드·접고서·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토, 모래 그림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들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